

곡성군, ‘워케이션 한달살기’ 운영 생활인구 늘린다

심청한옥마을서 12월까지 운영
회의실·업무실 시설 갖춰져 있어
전문직군 대상 지역 탐색 기회
“장기 체류 기회 집중 발굴 노력”

전라남도 곡성군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휴양지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워케이션’과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추
진한다.

곡성군은 수도권 기업들이 곡성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워크빌리지 곡성’ 프
로그램을 심청한옥마을에서 12월까지 운
영한다고 1일 밝혔다.

‘워크빌리지 곡성’은 스타트업·비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매월 10개의
기업들이 심청한옥마을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업무를 수행한다.

심청한옥마을에는 회의실, 업무실 등
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 18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용
객은 총 1100여명이다.

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프리랜서 등
전문 직군을 대상으로 5박 6일 동안 곡성
에 지내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이 제공된다.

곡성군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곡
성한달살기’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프로그램을 위해 심청한옥마을 송정관
일부를 4인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협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워케이션 참여
기업과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수도권 등 타지역민이 곡성
에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러스틱타운(농
촌유학 결합형 워케이션 기업마을), 지역
활력타운(주거·생활인프라·일자리)을
조성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업들이 곡성에서
장기간 머물며 생활을 하고 일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나주시, ‘농업인 가공 아카데미’
2차 교육생 모집… 11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업인 가공 역량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위
한 교육에 나선다.

나주시와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
산업진흥재단은 ‘2025 농업인 가공 아카
데미’ 2차 교육과정 교육생을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6
회에 걸쳐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농산
물종합가공센터에서 실시하고 선착순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위생 실무 교육, 가공 창업
성공사례, 식품 유형별 가공 기술 및 설비
이해(건식, 습식),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한 제품 실습(스콘, 쿠키, 장아찌 등)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했다.

수료생에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
설 및 장비 이용 기회, 시제품 제작 및 창
업 컨설팅,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의 혜택
을 제공한다.

신청은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
비해서 11일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전남 나주시 동수
농공단지길 62-8) 및 이메일
(nongminga0@gmail.com)을 통해 접
수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농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기
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
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화순군, 생활인구 증대 목표

전라남도 화순군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
하고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오
는 13일까지 ‘화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살고 싶은 화순(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오고 싶은 화순(문화관광 발전 아이
디어 등) 두 가지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을 모집한다.

화순군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
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
라 부서 실무 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100만원(1명), 금상 70만원(2명), 은상
50만원(3명), 동상 30만원(4명)을 시상
할 예정이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모전
은 국민이 직접 지역 발전 정책을 발굴하
고, 화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과정이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복숭아 농가 탄저병 예방약 지원
장성군, 군내 복숭아 전업농가

전라남도 장성군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지역 내 복숭아 전업농
가를 대상으로 ‘복숭아 탄저병 예방약
제’를 지원했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148농가 53.8ha로 이번에 공급되는 약제
는 사전 방제 효과가 높은 예방용 살균제
와 치료용 약제의 혼합 구성으로 병 발생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방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탄저병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탄저병
은 잎과 열매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등 과
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질 수
있어 하절기 방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
다.

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숭아탄저병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5
일까지 약제 살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맨발 걷기 통합 행사 연다
13일 너릿재 옛길서 진행 예정
전문가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등

전라남도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
을 위해 오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
다.

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
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
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 시간으로 맨발
걷기 체험도 함께 운영된다. 발바닥 감각
을 자극하며 바르게 맨발 걷기를 통해 일
상 속 건강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금연,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생활 실천 부스를 설치해 체지방 측정, 건
강 OX 퀴즈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
공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
한 건강검진을 넘어 군민들이 자신의 보
행 습관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장성군이 지난달 29~30일 관내 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저병 예방약제를 지원했다. 장성군의 한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 농민이 예방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서울 조계사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전라남도 담양군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 경내에서 ‘담양군 농특산물 직거
래장터’를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담양군이 조계사와
협력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한 산지 직송 방식
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담양 농산물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번 행사에는 담양 지역의 5개 우수
농가 및 생산업체가 참여했으며, 젓갈



류, 버섯류, 장류, 쌀엿, 김류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됐다. 특히, 청정 자연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친환경 농산물과 전통

식품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
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거래 행
사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담양 농특산
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에는 안
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
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매년 주요 사찰, 공공기
관, 대도시 소비처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
를 열어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
다.

담양=신재현 기자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서 플로깅 활동

SNS 인증 챌린지 등

전라남도 곡성군이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섬진강 침실습지
일원에서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플로깅
(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
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플
로깅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곡
성군, 영산강유역환경청, 푸른곡성21 실
천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곡성천, 오곡천과 섬진강
이 만나는 침실습지 일원을 중심으로 하
천에 방치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 다양한



지난달 30일 곡성군이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곡성군 제공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집, 분류
등 과정을 촬영하고, 참여자들이 이를
SNS에 공유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종
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행동 확산에도
힘을 보탤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침실습지 플로
깅은 단순한 정화활동을 넘어, 환경문제

에 대한 공감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의 책임이
모여 변화된 시민의식은 결국 제도와 정
책을 움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생
활 속 작은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
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